

기술사제도 40년의 역사와 새로운 다짐

한국기술사제도 40주년 기념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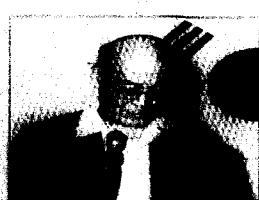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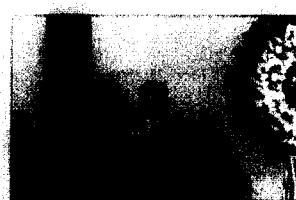


The History of Professional Engineer System during 40 Years & a New P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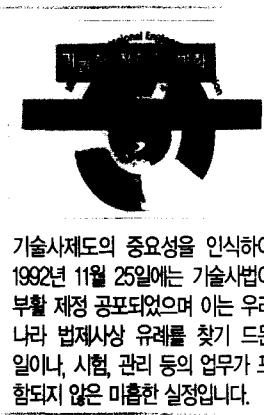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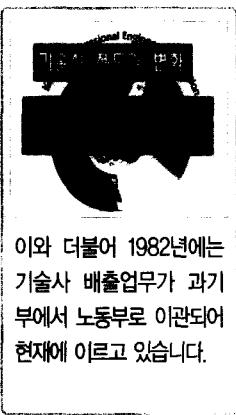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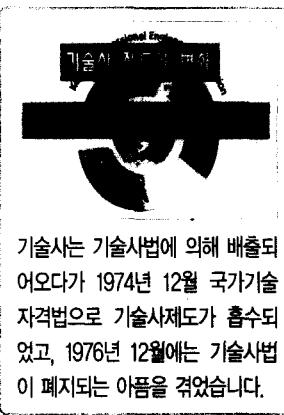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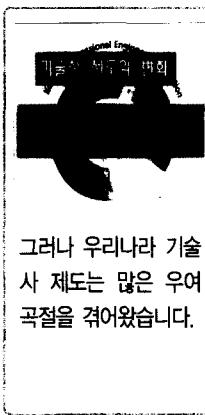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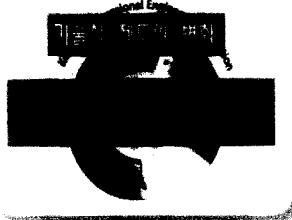
본 원고는 2월 25일 개최한 “기술사제도 도입 40주년 및 제4회 기술사의 날” 행사시에 상영하였던 「기술사제도 40년의 역사와 새로운 다짐」이라는 영상물을 글과 사진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기술사법을 제정·공포하면서
-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1월 14일 제1회 기술사 합격자 67명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 1965년 2월 기술사등록을 시작하면서 기술사제도는 활기찬 출발을 하여
- 1회 합격 기술사들은 곧바로 한국기술사회 창립총회를 갖고 2월 26일 제1대 회장인 김해림 초대회장의 취임으로 올해가 기술사제도 도입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 1967년 과학기술처가 신설되고 기술사의 주무부처를 경제기획원에서 과학기술처로 옮김으로서
- 기술사제도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을 담당하는 현재의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술사 제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기술사는 기술사법에 의해 배출되어오다가 1974년 12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기술사제도가 축수되었고, 1976년 12월에는 기술사법이 폐지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982년에는 기술사 배출업무가 과기부에서 노동부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술사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2년 11월 25일에는 기술사법이 부활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법제사상 유례를 찾기 드문 일이나, 시험, 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기술사들은 국가의 기간산업 현장인 도로, 항만, 공항, 플랜트 등 대형국책사업의 건설에 중추역할을 하면서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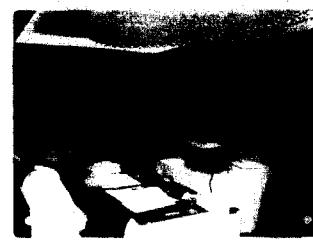




- 한편 1968년 「기술사」지를 창간하여 현장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기술자료들을 게재하여 기술의 지변화대에 많은 노력을 하여 기술보급에 앞장서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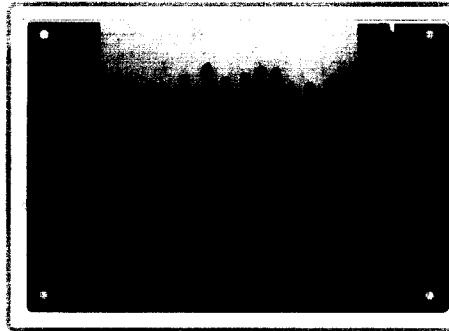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기술사회는 기술사들의 국제교류와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해외 기술사회와 교류를 갖는 등 많은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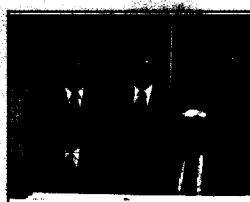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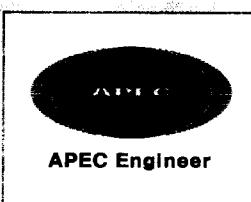
1971년부터 일본기술사회와 업무협력협정을 맺어 매년 "한일기술사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 1999년 제29회 한일기술사합동심포지엄에는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시어 양국 기술사들의 활동에 격려를 하여 주시는 등 기술강국을 위해선 국가고급기술인력인 기술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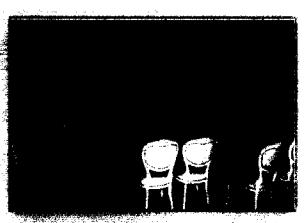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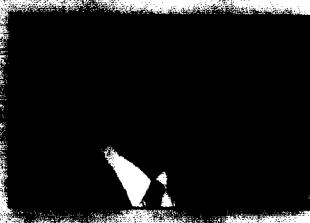




- 이와 더불어 동남아시아태평양공학단체연합 정회원 가입, 호주공학회와의 업무협력협정 체결,
- 국제기술사이동성포럼(EMF) 한국대표기관 지정, 에이펙(APEC) 엔지니어 등록사무소, 에프티에이(FTA)협상,
- 미국기술사회와의 업무협력협정 체결 등 기술사의 국제 위상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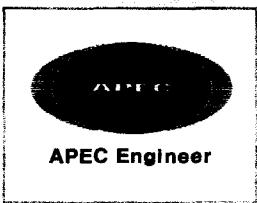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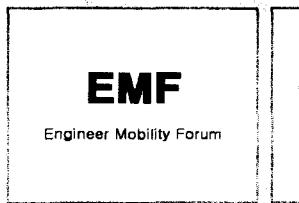


- 또한 1985년부터 한국기술사회는 기술사 능력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전 분야 기술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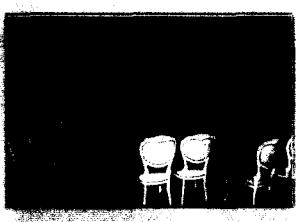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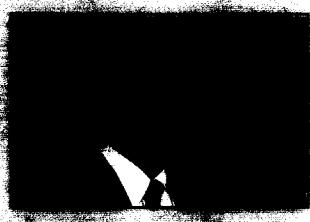




- 이와 더불어 동남아시아태평양공학단체연합 정회원 가입, 호주공학회와의 업무협력협정 체결,
- 국제기술사이동성포럼(EMF) 한국대표기관 지정, 에이펙(APEC) 엔지니어 등록사무소, 에프티에이(FTA)협상,
- 미국기술사회와의 업무협력협정 체결 등 기술사의 국제 위상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또한 1985년부터 한국기술사회는 기술사 능력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전 분야 기술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교육내용은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과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소양 교육 등 전문가로서 기술사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 사진은 당시 대전 EXPO 조직위원장이셨던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님의 강연을 기술사들이 경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 아울러 기술사CM교육원을 통하여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직 공무원, 군시설감 및 영관급장교, 정부투자기관 임원, 기업의 간부직 등 약 2,000명이 교육이수를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전문교육기관지정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